

광주은행, 코로나 극복 금융지원 2500억 돌파

광주신보와 업무협력 2개월
145개 영업점 전담창구 운영
피해 소상공인 대출 신속 이행
자체 특별자금 1689명 수혜

“코로나19 피해를 하루라도 빨리 복구하기 위해 내 일처럼 임했습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광주신용보증재단 업무를 위탁한 지 2개월 만에 자금지원 2500억원을 이뤄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3월부터 광주신보와 업무협약을 맺고, 신보의 보증상담·서류접수·현장방문·보증약정 등 업무를 직접 대행 처리했다.

대출 신청자에 비해 업무담당자가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보증상담 및 현장실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보증서 발급과 실제로 대출을 받기까지는 1-2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로 인해 대출 신청자는 은행과 신보를 번갈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며 보증을 상담 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목을 축이는 데는 광주은행이 파견한 40여 명 직원의 공이 컸다.

광주은행은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신보 본점과 지점에 직원 40여 명을 보냈다. 이들은 서류 검토와 보증서 발급 업무를 지원하며 신속성을 높였다. 파견 직원들은 매일 허리 높이까지 쌓인 보



송중욱 광주은행장이 총장로5가 포용금융센터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금융지원 상담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증신청 서류를 검토하며 신보 업무를 소화했다. 광산구 도천동 광주신보 본점은 자정이 되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날이 허다할 정도였다.

신보 특별보증 외에도 광주은행이 자체 조성한 ‘코로나19 특별자금’은 3개월 여 동안 1689명(2524억원)에 돌아갔다. 특별자금 이용자들은 신규 대출과 만기연장, 분할상환유예 등을 지원받았다.

광주은행은 지난 2월 초 피해 중소기업과 여행업·숙박업·음식업 등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총 1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했다. 광주은행은 지원한도가 조기 소진되면서 지난 3월에는 1000억원, 4월에는 2000억원을 증액하며 코로나 피해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종합상황판을 운영하며 145개 모든 영업점에 피해상담 전담창구를 개설·운영해왔다.

앞서 광주·전남도에 마스크 3만개와 긴급구호 성금 1억원을 각각 전달하고 목포·순천·여수·나주시에 후원금 각 1000만원을 전하며 지역위기 극복에 동참해왔

다. 임직원들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박스 700개를 직접 만들어 취약계층과 코로나19 의료진에 응원을 보냈다.

송중욱 행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다양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40.42 (+18.25)	↓ 금리 (국고채 3년) 0.856 (-0.030)
↑ 코스닥 691.53 (+7.32)	↓ 환율 (USD) 1223.80 (-1.00)

한전, 광 태양광 사업 2억달러 차입 성공

광 전력청과 25년 판매계약

한국전력이 총사업비 2억 달러(약 2451억원) 규모인 미국 광 태양광 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금융계약을 국내외 은행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주단에 참여한 은행은 미즈호은행과 KDB산업은행이다. 한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차입금을 조달해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광 망길라오 지역에 태양광 발전설비 60M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32MW의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 태양광 설비는 내년에 준공해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전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업을 수주하며 광 전력청(GPA)과 25년 장기 전력판매계약을 맺었다. 향후 기대 매출은 약 3억



태양광 발전소 전경

4000만달러(약 4000억원)에 이른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도 해외 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역량을 잇따라 인정받아 왔다”며 “광 태양광 발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요르단 푸제이지 풍력발전소 준공, 멕시코 태양광발전소 착공에 이어 친환경 청정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부응하면서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국세청 ‘소상공인·시장상인 세정 지원’

국세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광주호남본부)

일시 : 2020. 5. 13.(수) 광주지방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사진 왼쪽)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본부장 남영주·오른쪽)는 1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호남지역 32만9000여 소상공인과 224개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정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들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과 처리에 관

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 광주국세청 주관 납세자세금교실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의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박석현 청장은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성장과 상생발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전남 일시 휴직자 8만2000명

4월 전년비 290.5% 급증...광주 고용률 3년5개월만에 최저

‘코로나 고용 쇼크’

광주 고용률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코로나 고용쇼크’가 확인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지역 고용률은 광주 57.9%·전남 62.9%로 집계됐다.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광주 고용률은 지난 2016년 1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광주·전남 4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 8000명 줄며 3년 4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나타냈다.

지역 취업자 수는 광주 73만7000명·전남 96만명으로 총 1만6000명이 감소했다.

연령대 별로 보면 30대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한 광주·전

남 취업자 수는 30대가 각 1만3000명 줄며 가장 많이 줄었다. 통계상 취업자로 잡히지만 휴업·휴직, 자녀돌봄 등으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수는 광주·전남 각 4만 1000명으로 총 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일시휴직자 수는 지난해보다 무려 6만1000명(290.5%) 급증했다.

지역 일자리 감소는 고용 불안계층에 집중됐다. 광주지역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 1만3000명, 5000명 줄었다. 전남 역시 임시근로자는 1만3000명, 일용근로자 7000명 감소했다.

한편 지난 달 전국 취업자 수는 2656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백희준 기자 bhj@

회복중이던 소상공인 매출 다시 ‘뚝’

클럽발 코로나 확산...매출 감소율 전주보다 1.7%p 증가

회복 기미를 보이던 광주·호남지역 소상공인 매출이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산으로 또 다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소상공인 매출액 추이 결과에 따르면 광주·호남 지역 15주차(5월11일)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비율은 56.4%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1.7%포인트 더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 발생 전 매출을 100%로 가정할 때 56.4%나 떨어졌다는 의미다.

광주·호남지역은 코로나19 발생 12주차(4월20일) 매출액 감소비율이 62.9%에서 점차 회복해 54.7%로 좋아졌다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이후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입고 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올해

2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00곳, 전통시장 2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매출액을 비교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주 대비 10.2%포인트 더 감소한 64%로 나타났고, 제주는 4%포인트 감소한 60.0%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관광·여가·숙박(67.9→76.9), 교육서비스(62.2→64.1), 음식점(49.3→50.6) 등의 매출이 전주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정부 요청 사항을 묻는 말(복수응답)에는 소상공인전용상품권 확대(93.7%), 홍보·마케팅비 지원(9.3%), 지역축제 등 공동이벤트 확대(6.7%) 순으로 답이 나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